

입학식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하는 14기 신입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교수님과 이 자리를 준비해주신 교직원 그리고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재학생을 대표하여 환영사를 맡은 원우회장 임태규입니다.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할 기회를 얻어 영광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입학식조차 무산되었던 제작년, 그리고 비대면으로 입학식을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올해는 이렇게 직접 만나 뵙고 축하할 기회가 주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작년부터 이어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중단돼버렸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조금 나아지나 싶었지만 아직은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치열했던 입시를 마치고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첫발을 내딛게 된 신입생 여러분들께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의 여정을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들께 저의 1년간 학교생활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서로 협력하는 정신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 교직원분들의 세심한 지원, 원우들 간의 끈끈한 신뢰, 이러한 구성원 간의 노력이 협력의 지혜를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근간 위에 우리 법학전문대학원은 높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이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입생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협력의 지혜의 바탕에는 배려와 인내가 존재합니다. 배려하고 인내하는 3년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불가피하게 오해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로를 이해하고 풀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원칙을 지키며 인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입생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는 '동행'하는 교수님, 선배들, 동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교수님들께서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관심을 가지시고 의견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저도 많은 피드백과 꼼꼼한 첨삭지도를 통해 학업적으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선배님들은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많은 학업 자료를 제공해 주셨고, 학교 생활에 관하여 질문할 때마다 친절히 답변해주셨습니다. 이제 선배 역할을 하게 된 저를 포함한 13기들은 14기 후배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동기'들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학교 생활에서 가장 의지하게 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대상은 동기들입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저는 동기들 덕분에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학교 생활한 것 같습니다. 14기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도 서로에게 좋은 동기가 되어 많은 추억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